



# 明慧週刊



麥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15期(2026.10.27) WWW.MINGHUI.ORG

한글판 1079호 minghui.or.kr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앙절에 개막했다.

## 주요내용

【중국법회】 집착을 버리니 성과가 나타나다

【중국법회】 사람의 일념과 신의 일념에 대한 얇은 깨달음

【중국법회】 억울한 감옥살이 이후, 법을 외우고 착실히 수련하며 중생을 구하다

【대만법회】 진정으로 날 변화시킨 대법

## 〈목 차〉

### ■ 제23회 중국법회

|                                         |    |
|-----------------------------------------|----|
| 집착을 버리니 성과가 나타나다 .....                  | 3  |
| 사람의 일념과 신의 일념에 대한 얇은 깨달음 .....          | 10 |
| 억울한 감옥살이 이후, 법을 외우고 착실히 수련하며 중생을 구하다 .. | 17 |

### ■ 2026년 대만법회

|                                    |    |
|------------------------------------|----|
| 진정으로 날 변화시킨 대법 .....               | 40 |
| 속인에서 수련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 .....          | 47 |
| 이기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감하게 정법 수련의 길을 견지하다 | 55 |
| 착실한 수련을 견지하며 사명을 완수하다 .....        | 64 |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착을 버리니 성과가 나타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오랫동안 나는 딸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딸은 중공 악당 매체의 거짓 선전을 믿고 속아 넘어갔기에 대법에 대한 오해가 매우 깊어 진상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매번 이 화제를 꺼내기만 하면 딸은 ‘폭발’했고, 며칠 동안이나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딸은 체제 내의 작은 간부다. 딸은 마음씨가 착하고 공정하며 사심이 없고, 탐내거나 착복하지 않는다. 명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돈이나 선물을 주어도 딸은 모두 받지 않았다. 거절할 때 딸은 자주 말했다. “우리 엄마는 직장에 다닐 때 누가 선물을 줘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안 받아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누구든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 선물을 주든 안 주든 똑같이 대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고, 내 언행이 딸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생각했다. ‘네가 진상을 듣지 않으니 그럼 내가 진상을 보여주마.’ 그래서 나는 평소의 언행에서 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곳곳에서 ‘진선인(眞·善·忍)’을 체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딸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가장 잘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또 인내심도 가장 강하시고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틈을 타 진상을 알려주려 했지만, 딸은 듣자마자 몸을 돌려 가버렸다.

전염병이 심각하던 기간, 하루는 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밖의 전염병 상황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했다(사실 딸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었다). 마침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염병 방역 상황이 가장 좋으며…”라고 방송하고 있었다. 딸이 말했다. “밖의 전염병 상황은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이어서 말했다. “파룬궁을 박해할 때도 그들은 그렇게 했단다.”

딸은 듣고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퍼부었고, 곧바로 기세등등하게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가져와 나를 위협했다. 내 남편이 그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식칼을 빼앗으며 딸을 꾸짖었다. “너 대체 뭐하는 짓이야?!”

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는 다시는 파룬궁을 연마하면 안 돼!” 그러고는 내게 유일하게 남은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뒤져서 가져갔고, 또 내가 연공할 때 쓰는 MP3 플레이어까지 가져가 버렸다. 남편이 말했다. “그 두 가지 물건은 엄마한테 남겨둬라!” 딸은 듣지 않고 고집스레 가져가 버렸다. 이 일은 나에게 깊은 두려움을 남겼고, 놀란 나는 더더욱 딸에게 감히 진상을 알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됐다.

이후 딸은 ‘전법륜’과 MP3를 나의 한 친척에게 주며 말했다. “우리 엄마를 위해 보관해 주세요.” 며칠 뒤, 친척은 책과 MP3를 나에게 가져다주었다.

남편이 내게 말했다. “앞으로 딸이 출근하면 당신은 법공부와 연공을 하고, 피곤해서 안 할 때는 내가 책을 보관해 줄 테니 딸

이 보지 못하게 합시다.” 지금까지도 딸은 집에 대법서적이 있는 줄 모르지만, 내가 연공을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가끔 내가 연공하는 것을 딸이 보아도 못 본 척하며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않았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나의 대법서적 보관을 도와준 것은 그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지지하기 시작했음을 설명한다. 과거에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는 나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딸 편에 서서 불난 데 부채질을 하며 함께 나를 힘들게 했다.

남편은 부현급(副縣級) 간부로, 악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20여 년간 줄곧 악당을 따라 나를 박해해 왔다. 그는 직장에서 회의 중에 파룬궁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어디서 대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만 하면, 집에 돌아와 그것을 구실 삼아 온갖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와 딸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고, 이런 일은 종종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다. 그가 한밤중에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조차 없다.

그는 또 내가 수련생과 접촉하는 것을 막았고, 대법서적을 가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목숨을 걸고서야 간신히 ‘전법륜’한 권을 남길 수 있었다. 그들의 변명은 이러했다. “당신이 파룬궁을 연마하니까 우리가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

나는 파룬따파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히스테릭하게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못하게 막았고, 사방의 이웃들이 편히 쉬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굴었다. 가끔 사람 마음이 올라올 때면, 나는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감옥 같다고 느꼈다.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심지어 내 생사조차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상심이 깊어질 때면, 나는 정말이지 이 집을 떠나 훌쩍 가버리고 싶었다. 낯선 곳으로 가서 당당하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을 돌려 ‘내가 떠나서 해탈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찌나?’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고 그들 역시 중생이며 제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나는 인내해야 하고, 반드시 그들을 구해야만 한다! 오직 이 일념뿐, 다른 바램은 없었다!

이를 위해 나는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여, 일언일행과 일사일념이 모두 법에 있도록 노력하며 대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애썼다. 나는 또 매일 꾸준히 그들을 위해 정념(正念)을 발해, 그들이 법을 얻는 것을 교란하고 내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것을 교란하는 일체의 사악한 요소를 제거했다. 남편과 딸도 비록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바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후 발생한 한 가지 사건이 남편의 관념을 철저히 바꿔놓았다.

나의 90세 노모 역시 수련한 지 30년 된 대법제자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레 심근경색을 일으켰고, 가족들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는 연거푸 세 번이나 위독 통지서를 내렸다.

나와 친척 수련생은 어머니가 병엽 고비를 넘고 있음을 알았기에, 병엽의 가상을 단호히 부정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어머니의 손을 한쪽씩 쥐고 끊임없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웠고, 마음속으로도 정념을 발했다.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도 모두 따라 외웠다. 점차 어머니의 차가웠던 손이 따

뜻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깨어나 눈을 떴으며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내게 ‘파룬따파하오를 자주 외우면, 큰 재난이 올 때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믿지 않았소. 오늘 장모님이 기사회생하는 모든 과정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대법의 신기함을 입증받았구려. 정말로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를 외우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목숨을 지킨다’는 말이 맞네.”

그 일 이후, 그는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를 믿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자주 묵념했으며, 중공이라는 이 악당 조직에서도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했다. 바로 이 때문에 그가 자발적으로 나의 대법서적 보관을 도와준 것이다. 남편의 변화는 내가 딸을 구하겠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최근 한동안 진지하게 많은 법공부를 한 덕분에 심성(心性) 상태가 모두 올라왔다. 나는 딸에게 다시 한번 진상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예전의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하루 전날 발정념을 강화하여 딸에게도 발하고 나 자신에게도 발했다. 나는 자신의 정념을 더 강하게, 더욱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 정념이 충만했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으며 생사도 내려놓았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 둘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딸에게 말했다. “파룬따파는 좋은 거란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별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는 왜 아직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엄마가 연마하는 건 우리가 간섭 안 하고 반대 안 하면 된 거잖아.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그 말 하지 마!” 말을 마친 딸은 자기 침실로 돌아가 전화

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딸이 큰 소리로 “거기 110(경찰)이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어서 목소리를 낮추었는데, 뒤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똑똑히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 딸은 하루 종일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온종일 화를 냈다. 내 마음은 매우 순수했고 오직 딸을 구하려는 단 하나의 소원뿐이었다.

밤 12시 정념을 발하고 나서 다시 몇 가지 공법을 연공한 뒤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하나 꾸었다. 나는 꿈을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 꿈이 나에게 준 충격이 너무 컸기에 수련생들과 나누고자 한다.

꿈속에서 나는 왼손에 A4 용지 절반 크기의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 적힌 글자는 작은 판본의 ‘전법륜’에 있는 글자 처럼 작았다. 나는 종이를 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읽다 보니 그것이 사부님께서 내게 써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부님의 말씀은 지식이 얇은 나로서는 잘 표현할 수 없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사부님의 말씀은 심오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웠고, 내가 수련한 30여 년 동안의 빛나는 점들을 개괄하셨다. 구절마다 제자에 대한 사부님의 칭찬이 담겨 있었고, 제자를 향한 사부님의 무량한 자비가 배어 있었다. 반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나는 마지막 구절까지 계속 읽었다. “너는 가장 크고 마지막인 고비를 넘었으며, 너의 그 순수하고 바른 모든 것이 미래 너의 우주가 영원히 성주불파(成住不破)할 것을 보증하였느니라!”

나는 내 낭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벅차오르는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일어나 앉아 속으로 생각했다. ‘이 가장 크고 마지막인 고

비가 바로 내가 딸에게 진상을 알린 일이 아닌가.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고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으며, 단지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만 있었을 뿐인데 사부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셨구나.’ 문득 나는 깨달았다. ‘사부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보시는 구나.’ 나의 집착심을 버리자 사부님께서 이렇게 큰 성과(聖果)를 주신 것이다. 순간, 나는 사부님의 호탕한 불은(佛恩)을 느꼈다. 제자는 보답할 길이 없기에 오직 용맹정진(勇猛精進)할 뿐이다.

아침 6시 정념을 발한 후 침실을 나오자, 딸은 나를 보고 방긋 방긋 웃으며 말을 걸었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이것은 이런 류의 일이 발생한 후 딸이 보여준 가장 좋은 모습이었고, 하루 만에 화가 풀린 것이었다.

일이 지난 후 나 역시 스스로를 반성해 보았다. 내가 딸에게 진상을 알려주었는데 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설명한다. 내게는 아직 심성상 닦아버리지 못한 것이 존재하고, 아직 의식하지 못한 집착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진지하게 법공부를 하고, 더 깊고 세밀하게 안으로 찾아, ‘진선인’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닦아버려야 한다. 나는 ‘진념(真念)이 펼쳐지니 온 하늘이 개이네’[홍음4-감개(感慨)]라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생각한다.

딸이 자발적으로 나를 찾아와 진상을 들을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나는 굳게 믿는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사람의 일념과 신의 일념에 대한 얇은 깨달음

글/ 중국 쓰촨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례 명혜망 중국법회가 시작됐습니다. 송고한 마음으로 원고를 쓰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래에 제가 최근 수련 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조금 적어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사람의 사상이 우위를 점한다면, 그럼 그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신의 사상과 사람의 정념이 우위를 점한다면, 그는 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2005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련의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일념과 신의 일념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느 기간에 법공부를 잘하고 비교적 정진하며 정념이 충족해 수련 의식이 강하다면, 갑작스러운 갈등이나 각종 고난에 직면했을 때 신의 일념으로 자신을 주도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느 기간에 사람의 마음과 집착이 많다면, 갑작스러운 갈등이나 각종 고난을 만났을 때 사상이 법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사상이 법에서 벗어나면 법의 힘이 없어 사람의 일념, 사람의 마음, 집착에 이끌려 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기 십상입니다.

### 1. 가정 갈등 속에서 수련하다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친숙한 사람들이기에 집에서는 자칫 긴장

을 풀기 쉽고, 특히 온 가족이 수련생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대법으로 상대방을 가늠했을 뿐, 대법에 대조해 자신을 수련하거나 무조건 안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은 격화됐고 가정은 오랫동안 시련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법제자의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구세력이 안내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상쇄시키고 내부적으로 소모전을 벌이며 사람의 사유에 빠져 오랫동안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부족함만 쳐다보며 자신을 완전히 속인과 혼동했고, 우리를 장기간 올바르게 않은 상태에 처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 공간장에 원망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제 자신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대법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이러한 상태가 2~3년 동안이나 지속됐는데, 이는 제가 20여 년간 수련하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반성을 통해 법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이런 상태를 철저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끊임없이 법공부를 많이 하고 끊임없이 관념을 바꾸며, 이 좋지 않은 일을 심성과 층차를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 사람의 마음, 집착, 관념을 찾아낸 뒤 사부님의 대법에 대조해 자신을 바로잡고, 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대법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착실하게 수련하자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돌아보면 이러한 갈등은 사실 사부님께서 이 갈등을 이용해 제 심성과

층차를 높여주시고 저를 사람에서 신으로 변화시키시려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후 다시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 관념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게 됐고, 이로써 신의 사상과 사람의 정념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단번에 잘해낼 수는 없었고, 신의 일념과 사람의 일념이 여전히 다투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정념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남편(수련생)을 단번에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밥을 먹던 중에 남편에게 다짜고짜 호되게 훈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애써 참았고 마음속으로 ‘그가 어떻게 말하든 난 절대 대꾸하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너무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을 다 먹고 화장실로 갔는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 수련 참 형편없이 했구나. 남이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다니, 정말 너무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속 억울함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화도 단번에 가라앉았으며, 마음이 일순간 평온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일거사득(一舉四得)’(전법륜)의 법리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순간 저는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가 제게 심성을 높일 기회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속이 안 풀리면 그냥 나가. 당분간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

서 며칠 지내.”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 풀렸어요. 당신을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당신이 저한테 제고할 기회를 줬잖아요.” 남편은 제가 반어법을 쓴다고 생각했는지 알쏭달쏭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때 저는 무엇이 저를 그토록 억울하고 괴롭게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의 마음과 집착이 있는지 깊이 파고 들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아주 커다란 사람의 마음과 집착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토록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남편의 일깨움 덕분에 저는 마침내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고, 제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들으면 괴로워하며 논쟁하려 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쟁투심과 원망심이 폭로됐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대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제게도 똑같은 사람의 마음과 집착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저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했을 것입니다. 제가 수련생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입을 열어 함부로 말하며 악독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는 심각하게 수구(修口)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막대한 업력을 지어 제 양쪽 어금니가 전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관념을 바꿨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상대방이 틀렸고, 단지 제가 너그럽게 양보해 그와 똑같이 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대법의 요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저는 비로소 진심으로 남편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게 이토록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2. 몸에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나타났을 때, 신의 일념으로 사람의 일념을 어떻게 이겼는가

몸에 병업 상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저는 약간의 체득이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법에서 우리 수련생에게는 병이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신체에 나타난 문제는 우리가 생생세세 지은 업력을 소멸하는 과정이므로 모두 좋은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겠지만 정념을 확고히 하고 그 가상에 미혹되지 않을 때 대법의 신기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20년 전 어느 날, 저는 새벽 4시가 넘어서부터 소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배가 똥똥하게 부풀어 오르고 몸이 매우 괴로웠으며 얼굴에는 혈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렸지만 소변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만 사람의 일념을 품고 말았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소변을 빼내려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자 의사는 제게 “방광이 망가졌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도리어 단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섰고 다시는 사람의 일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무렵, 가족 수련생과 함께 정념을 발할 때, 제 신의 일면이 단번에 강대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괴로운 이 몸을 나라고 여기지 말고 그냥 괴로워하게 내버려두자. 나는 정념을 잘 발해야겠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이 무척 크고 높게 느껴졌고, 그런 고통스러운 감각이 순식간에 제게서 떨어져 나갔으며, 강력한 정념을 발해 사악을 해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변이 단번에 배출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고 몸은 일

순간 가벼워졌으며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것은 진정 정사(正邪)간의 대결이었고, 신의 일념이 사람의 일념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어떤 수련생의 교류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금니 하나가 빠지자마자 즉시 손으로 그 빠진 치아를 원래 위치에 꼭 누르고는 단단히 자라라고 했습니다. 치아가 다시 빠지자 그녀는 다시 꼭 눌러 넣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자 결국 그 치아는 정말로 다시 자라났고 두 번 다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제 양쪽 어금니가 흔들려 감히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칫솔로 양치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칫솔질을 하면 잇몸 전체가 너무 아파 그저 손으로 대충 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분명 수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구하지 못해 초래된 것이고, 또 다른 원인은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에 대조해 자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제 수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성을 닦지 않아 끊임없이 가정 갈등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온통 다른 사람의 잘못만 생각했을 뿐, 대법에 대조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갈등에 부닥치면 서로 다투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조금도 물려서지 않고 가장 악랄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반격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행동이 제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볼 때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분노를 터뜨리며 서로 상처를 주고 깊은 업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특하면 뒤에서 남을 헐담하고 나쁜 말을 했는데, 이는 모두 대법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었고 그에 대응되어 치아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제 부족함을 찾은 후 저는 자신을 철저히 바꾸

기로 결심했고, 제대로 수련하며 마음가짐을 잘 조절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흔들리는 이 치아 몇 개와 잇몸을 향해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능동적으로 ‘진선인’ 우주 대법에 동화해야 해. 좋지 않은 부분은 바로잡고 우리 함께 노력하자. 치아는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고 잇몸도 잘 아물어야 해.” 일정 기간 착실하게 수련한 후, 지금 제 흔들리던 어금니들은 하나만 아직 덜렁거릴 뿐 나머지 7개는 기본적으로 단단히 자리를 잡아 음식을 먹는 것도 정상이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며 각 방면에서 끊임 없이 공을 들일 것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으로 찾는 법보(法寶)를 주셨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찾아봐야 하고, 제때 자신의 부족함을 찾을 수 있다면 대법으로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 사상이 대법이 제게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신의 일념이 주도권을 쥐었을 때, 신의 길에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功)이 나올 때도 몸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저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신의 기준에 자신을 두고 제가 겪는 난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저의 얇은 인식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억울한 감옥살이 이후, 법을 외우고 착실히 수련하며 중생을 구하다

글/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순의(順意)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에서 태어난 여성 대법제자로, 올해 65세이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이미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십여 가지 병통의 고문에서 벗어나 병 없이 몸이 가벼워지기까지, 그리고 기가 세고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이고 오로지 남을 위하는 생명으로 수련해 나오기까지, 이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겪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환골탈태하며 힘들게 마음을 닦고 제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어느 한 걸음도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일깨움, 그리고 내내 보호해주심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 제자 곁에 계셔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아래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년간의 수련 과정과 체득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 1. 고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닦아내고 수련의 새로운 환경을 열다

중공(중국공산당)이 만들어낸 4년형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수련 환경에 이미 큰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련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수련하는 것을 반대했고, 수련생이 저를 보러 오는 것조차 불쾌해했습니다. 제가 불일이 있

어 수련생 집에 갈 때면 그들은 감시했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동네에는 치과가 세 곳 있었는데, 제가 이를 때우러 가자 남동생은 뜻밖에도 치과마다 돌아다니며 저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검은 소굴에서 갓 벗어나자마자 또 가정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통제당해서는 안 돼. 대법제자는 어디서든 주인공이니 나는 바르지 않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남동생이 자기 집에 며칠 머물라고 했지만, 설을 쇠어야 해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련생이 찾아왔다가 문을 안 닫고 가는 바람에 보일러랑 바닥 난방이 다 얼어 터져서 물바다가 됐잖아요. 새 보일러 사느라 2천 위안 넘게 썼다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검은 소굴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구사일생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없구나.’ 게다가 제 통장 두 개와 팔찌와 목걸이들(90여 그램의 금으로 만든 것)이 없어진 것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입출금 통장에 있던 2만 위안을 자기가 빼서 썼다고 인정했고, 며느리는 서둘러 자기는 한 푼도 안 썼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사부님의 일깨움으로, 저는 그 팔찌와 목걸이들을 며느리가 다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고 그 후로 다시는 이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2009년 겨울, 남편이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가 기어코 작은 식당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안에는 사돈을 포함한 친척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제 사촌 여동생과 제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이제

안 계시고 엄마는 수입이 없단다. 그리고 네 동생은 아직 장가도 안 갔잖아. 너희가 이 가게를 할 거면 1년에 엄마한테 1만 5백 위안을 드리는 게 어때? 남한테 세를 주면 1년 임대료가 2만 위안이야.” 그들은 동의했지만 십여 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저 역시 달라고 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일러가 얼어 터진 게 수련생이 왔다가 문을 안 닫아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왔다가 문을 안 닫아서 얼어 터졌을 수도 있잖아! 너희는 이 정도 돈 쓴 것도 못 견뎌 하면서 내가 너희랑 결산하자면 나한테 20여만 위안은 줘야 해.’ 겉으로는 제가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내려놓지 못했고 이익에 대한 집착, 불공평하게 느끼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등 사람의 마음들이 반응해 나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제 조카딸이 제게 새 구두 한 켤레를 주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가면 신으려고 신발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신으려 할 때 보니 구두가 없어져서 며느리에게 봤냐고 물었더니 친정어머니한테 갖다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입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네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도 내 구두를 가져가면 안 되지!’ 그때 저는 참고 따지지 않았으니 참 고상하다고 여겼습시다! 동시에 원망심과 질투심도 일어났습시다. 나중에야 제가 심성을 제고할 기회를 또 한 번 놓쳤다는 것을 알았고, 정말 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꼈습시다.

온갖 사람 마음을 닦아내지 못했고 진정으로 안으로 찾지 않았기에, 구세력은 또 가족을 이용해 제게 정신적, 경제적 박해를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사채까지 썼습니다. 빚쟁이가 집에 돈을 받으러 오고 나서야 우리는 그가 도박으로 30여만 위안의 빚을 진 것을 알았습니다. 사채 기한이 되자 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빚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며느리와 상의했습니다. “네가 먼저 돈을 내서 빚을 갚아. 나중에는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며느리는 당시 70~80만 위안이 있었는데, 돈을 내라는 소리를 듣자 다급해져서 말했습니다. “저보고 돈 내라고 하시면 저 뛰어내릴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할 수 없이 제가 살던 낡은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또 현금 2만 위안을 내놓아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전생에 그들에게 빚진 것을 이번 생에 갚는 셈 치자!’ 나중에 반성해 보며 깨달았는데, 사실 수련에 틈이 생겨 구세력에게 꼬투리를 잡혀 경제적 박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살게 됐고, 수련과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불편해져서 몹시 괴로웠습니다. 저는 제 이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고, 게다가 일을 하는 것을 수련으로 여기며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바르게 걷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죄송했습니다!

저는 계속 식당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도와 일하며 더러운 일, 힘든 일,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일 등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사사건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끓여놓은 고깃국을 대야에 담아놓고 나갔는데, 손님이 와서 저는 뜨거운 국물로 손님에게 식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후, 식은 국물을 먼저 쓰지 않았다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걸 먼저 쓰고 어느 걸 나중에 쓰라고 말도 안 해줬잖아. 게다가 어느 그릇이든 다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또 분개해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넌 트집을 잡는구나. 이웃들을 좀 보라, 내 나이에 나처럼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딴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법 수련하면서 좋은 사람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든 다 하셔야죠.”

저는 줄곧 며느리를 깔보는 마음이 있었고 반대로 며느리 역시 저를 깔보았기 때문에, 며느리는 더 사납게 굴며 큰 소리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10만 위안 있잖아요, 나가서 집 사서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지었어. 이사 나갈 사람은 너희들이지. 게다가 내 낡은 집을 팔아서 빚 갚아줬고, 너희가 식당을 하면서 집세도 안 주고, 내가 종업원 노릇에 보모 노릇까지 하는데 월급도 안 주면서 나보고 나가서 집을 사라고 하니 참염치도 없구나.” 며느리는 아마 자기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내쫓을 줄은 생각도 못 했기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고 그야말로 마음속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저는 심성을 지키지 못했고 쟁투심도 일어났으며 저를 수련인으로 여기지 못했고 더욱이 안으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냉정을 되찾은 후, 이 고비를 또 넘기지 못하고 마성(魔性)을 크게 부리며 구세력이 안배한 길을 가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걷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 스스로 법공부가 깊지 않았고, 진정으로 착실

히 수련하지 않았으며, 자세를 낮추지 못해 남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계다가 높은 곳에 군림하듯 일을 마주하면 모두 사람의 마음(人心), 사람의 생각(人念), 사람의 정(人情)으로 문제를 가늠했으니 저의 용량이 너무 작고 자비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신을 착실히 수련하기로 결심하고 심성을 닦는 데 공을 들였는데, 진정하게 마음을 닦을 때는 참으로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관념을 바꾸고, 사람 마음을 버리며 정념을 원하고, 심성을 굳게 지켜 선한 일면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제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 2. 법을 외우는 중 관념을 바꾸자 가족들도 변하다

명혜망에서 많은 수련생이 법을 외우는 체득을 교류한 것을 보고 저도 법을 외우기 시작했지만, 법을 외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전법륜(轉法輪)’을 제23쪽까지 외우고는 더 이상 외울 수 없었습니다. Z 수련생이 제게 ‘불성(佛性)’과 ‘도법(道法)’을 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저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 법공부를 할 때면 늘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몹시 조급해했습니다. 점차 사람도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Z 수련생이 저를 보러 와서 컴퓨터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전 컴퓨터와 프린터가 2013년 이전에 사악에게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웹페이지를 열자 첫눈에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사진이 보였고, 감사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렸습니다. 저는 합장하며 제 목숨을 구해주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

호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작에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법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법으로 제 자신을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2019년 3월 8일, 저는 다시 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자가 반드시 ‘전법륜’을 다 외울 수 있게 사부님께서 가지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외워야 했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으며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꾸준히 법을 외웠고 하루에 단 한두 구절만 외우더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이 되도록 한 단락도 능숙하게 외우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분량을 추구하지 않았고 단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능숙해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1년 반을 외우고 나서야 첫 번째를 다 외웠고, 지금은 총 5번을 다 외웠습니다. 저는 또 ‘불성’과 ‘도법’도 다 외웠습니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저는 제게 정말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의 법리가 끊임없이 나타났고, 제 심성이 끊임없이 제고됐으며, 지혜도 끊임없이 솟아났는데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특히 ‘불성’을 외울 때의 느낌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로켓을 타고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11일이 걸려 능숙하게 다 외우고 나니 정말 환골탈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때때로 몸에서 좋지 않은 물질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자의 좋지 않은 관념, 사람의 마음, 집착, 사상업력을 제거하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돌봐주시니 정말 좋구나! 사부님 감사합니다!’

법을 외우면서 저는 안으로 찾아 자신을 수련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법으로 남을 가늠하면서도 자신과 대조하지 않았고, 사람을 배웠지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의 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남을 대했고, 게다가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발끈하며 남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인내심이 없었고, 일이 제 생각이나 관념과 맞지 않으면 남의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말해버리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좋지 않은 물질들이 천천히 약해져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집착심이 나오자마자 제때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며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정념을 하고 가부좌를 할 때도 마음을 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조급하고 초조해하던 마음은 법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점차 청정하게 변했고, 마음가짐도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법을 외우는 것은 저의 관념을 바꾸어 주었고, 대법의 위력을 절실히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을 외우는 것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 사부님이 위대하시고 법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로 가족들도 변하고 있었는데, 특히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에게 저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건강도 좋으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먹고 입는 걸로 한 번도 다투신 적이 없고, 이익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으셔서. 시어머니가 가지신 적은 돈으로 내 생일 선물과 과일도 사주시고, 손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도 사주시는데 본인 옷은 한 번도 안 사시고 다 남들이 준 걸 입으셔서. 파룬궁이

우리 시어머니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 보면, 내가 볼 땐 파룬궁이 참 좋은 것 같아. 시어머니는 우리한테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다 선량하시고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며 이기적이지 않으셔.”

며느리는 또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마다 다 파룬궁을 수련하면 애 잃어버릴 일도 없을 테고 우리 중국이 좋아지지 않겠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문득 뉘우쳐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제 심성을 제고해주고 제 수련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며느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갈등과 고비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수련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갈등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놓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심성을 지키고 용량을 넓히며, 사람의 관념과 사유를 바꾸어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제고할 수 있고,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식당에서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식당에서 많은 인연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었고 일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저도 그들에게 진상과 대법의 아름다움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만두를 빚을 때 저는 미리 진상 방송을 켜서 듣게 했는데, 진상 방송 내용이 아주 전면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진상 방송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 어둡네요. 엄마, 이 대법이 이렇게 좋으니 엄마도 열심히 수련하세요!” 지금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온 가족이 몸이 건강합니다.

며느리 친정 친척들, 그리고 며느리의 친구, 동창 등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모두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시켰으며, 어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복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제가 식당에서 손님에게 진상을 알릴 때면 며느리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탈퇴하세요. 평안을 보장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가 한마디 거들면 상대방은 금방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진상 달력을 배포할 때가 되자 며느리는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달력 좀 주세요. 제 친구들한테 나눠줄게요.” 얼마나 좋은 아이입니까! 이는 며느리가 진상을 안 뒤의 선행이자 대법의 힘입니다!

### 3.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확고히 믿으며 정념으로 연금을 되찾다

처음 검은 소굴에서 돌아왔을 때, 중공 악당 직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교란하며 제게 수련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협조하지 않자 그들은 하루가 멀다고 집에 와서 억지를 부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파의 아름다움과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적적인 효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젊은 경찰 한 명이 옆에서 제 사진을 찍자 저는 그를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초상권 침해입니다. 당신들을 고발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가지 않자 저를 대신해 서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서명 안 하는데 넌 더더욱 서명하면 안 돼. 나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대법을 수련하는 거야.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서명해서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칠 수 있겠니? 서명하는 사람이 박해에 가담하는 거야.” 그들은 제가 서명하지 않자 모두 돌아갔습니다.

2022년 3월 어느 날 아침, 사법국 직원과 파출소 경찰이 찾아와 시와 현의 사법국,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직원들이 당일 저를 만나러 올 것이라 통보하며, 파출소에 가서 얘기할지 집에서 얘기할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으니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당신들은 정당한 일이나 좀 하지, 자꾸 와서 나를 교란하고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까? 이게 재밌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당신 집으로 갈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교란하러 올까, 아직 내 수련에 틈이 있는 건가?’ 저는 제게 쟁투심이 아주 강하고, 또 원망심, 질투심, 안일심, 과시심,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이 있으며 집에 교란하러 오는 직원들에 대한 선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발정념을 해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은 구세력이 강요한 것이니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만 걸을 것이다. 우리집은 불문(佛門)의 중요한 장소이고 사부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니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나는 오직 대법 사부님의 관할에만 속한다.’

발정념을 마친 후, 저는 연세가 드신 수련생 집에 법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둘은 함께 법공부를 한 지 이미 8년이 됐습니다. 제가 일의 경과를 말해주자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준비를 하고 오는 거니 얼른 친정아버지 집에 가서 피하세요.” 저는 집을 떠나 떠도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댁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누구 집에 가든 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에요. 아버지 연세도 80이 넘으셨는데 놀

라게 헤드릴 순 없어요. 저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들이 오면 저는 진상을 알릴 거고, 아니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전법륜’ 제6강을 공부했습니다. 그날 제 법공부 상태가 유난히 좋아서 배울수록 정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 가지 의념이 제게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발정념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오후 내내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한 바탕 박해의 가상(假相)이 사부님의 가지 아래 해체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법국과 파출소 경찰 등 몇 명이 또 와서 제게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지 않으니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건 소용없고 우리 사부님께서 말씀하셔야 결정된다.’

나중에 그들은 정말 제 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현지 사보국(사회보장국)에 가서 물어보고, 또 현(縣) 사보국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우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인데 왜 누리면 안 됩니까? 게다가 그 돈은 당신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당신들이 잠시 보관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시 저는 원망심과 쟁투심을 품고 있었기에 사보국 직원들의 태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안으로 찾아 제 말투가 선하지 않았고 자비심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발정념을 강화해 집착심, 좋지 않은 관념과 사상업력을 제거했고, 자주 사보국 관련 직원들을 위해 발정념을 하며 그들이 박해에 가담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연금을 달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 점차 마음을 내려 놓았습니다. 수련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연금을 포기하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달라고 하지 않을 뿐, 그냥 저를 위해 모아두게 내버려 둘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제게 주게 될 겁니다.” 저는 법공부, 법 암기, 발정념을 강화했고,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계속했습니다. 밤 11시, 12시에 발정념을 마치고 나서 자고, 새벽 3, 4시에 일어나 연공했습니다.

연공에 관해 말하자면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연공 시간이 됐는데 저는 나태함과 안일심에 휘둘려 알람을 끄고 생각했습니다. ‘5분만 더 자도 시간 맞출 수 있을 거야.’ 제가 방금 눈을 감았을 때, 한 손이 제 잠옷을 잡고 저를 뺨 끌어당겨 일으켰고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깨워 연공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안일심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는 늦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는 중에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제가 ‘전법륜’을 외우고 있을 때 한 목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보국을 찾아가거라.” 저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부님께서 내게 연금을 되찾으러 가라고 일깨워 주시는 건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가 됐구나, 이제 결과를 내야 해.’ 이번에는 제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저는 오직 사부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진상을 잘 알릴지, 선한 일면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이 인연 있는 사람들을 구할 것인지만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부님께 맡겼으며 사

부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사보국에 가기로 결정한 아침, 연공을 마치고 커튼을 걷어보니 밖에는 큰 눈이 내리고 있었고 우리 동네는 다 산길이라 차가 다닐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부님, 호법신, 천룡팔부와 다 오늘 가겠다고 약속했잖아.’ 정류장에 가보니 정말 차가 있었고 마침 현(縣)으로 가는 차였습니다. 차에 앉아 저는 법을 외우는 것 외에는 발정념을 해 모든 사보국 직원들 배후의 일체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제거해 그들에게 선량한 마음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2시간 후에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에 있는 Y 수련생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와 함께 사보국에 가고 싶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들은 모두 대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느라 바쁠 텐데 방해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겐 법의 지도가 있고 사부님의 보호가 있는데 무서울 게 뭐람. 정념정행하며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사보국에 도착하자 직원은 제게 판결문과 출소 증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판결문은 3년 전부터 당신들 쪽에 있었고, 출소했으니 증명서도 소용없어서 애들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컴퓨터로 제 정보 자료를 조회했고, 직원 A가 말했습니다. “판결문이 우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선해 보이는 다른 직원 B가 자료 더미로 가서 찾았는데, 그녀가 자료 더미를 몇 번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여기 있네요.” 직원 A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 그들 중 일부는 제 아들보다도 어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의사가 머리카락 끝 말고는 성한 데가 없이 온몸이 다 병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공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왔으니, 좋지 않나요?”

직원 C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은 병이 없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병이 다 나아서 20여 년 동안 약 한 알 안 먹고 주사 한 대 안 맞았어요. 게다가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이라 파룬따파라고도 부르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어요.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셔서 신체가 건강해지고 도덕이 승화하는 것에 도달하게 하세요.” 그들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사부님께서 제 곁에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또 ‘천안문 분신자살’이 조작된 것이며,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받고 생체 장기적출을 당하는 진상을 알려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사악과 거짓말이 당신들의 선량한 혜안을 가리지 못하게 해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젊고 위로는 부모님이, 아래로는 자녀가 있으니 가족을 위해 책임져야 해요! 우리 사부님께서 온 인류가 모두 사부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당신들도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좋은 일을 알려주어야 해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영원히 기억하면 대재난이 올 때 목숨을 보전할 수 있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으니, 이 좋은 일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는 단지 당신이 아름다운 미래를 갖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또 덧붙였습니다. “오늘 내가 눈보라를 뚫고 와서 방해한 건 당신들이 내 연금 문제를 좀 해결해주기를 바라서예요. 당신들은 다

착하니 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나도 살아야 하잖아요. 옛사람들이 스님에게 밥 한 술 드리는 것도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어요.”

이때 직원 B가 컴퓨터 책상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심하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다시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그쪽 현지 사보국과 직접 연락해서 처리해 드릴게요.” 직원 D가 말했습니다. “이건 꽤 번거로운 일이라 위아래로 결재를 받아야 해서 빨라야 3개월은 걸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어딜 가든 가는 곳마다 진상을 알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현지 사보국 직원이 호구부(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을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전화를 했고, 저는 또 가서 그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현지 사보국은 2026년 3월에 제 카드로 돈을 입금해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3월 15일에 제가 확인해 보니 돈이 없어서, 저는 다시 그에게 전화해서 왜 안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월말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29일에 다시 확인해 보니 3년 치 돈이 모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격려, 가지와 보호에 감사드리며, 제자는 비로소 정념으로 진상을 똑바로 알려 연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4. 전체가 협력해 한 지역 중생을 구하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지역의 물과 흙이 그 지역의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생이 구원받을 희망이며, 우리 이 지역 중생은 현지 대법제자들이 그들을 일깨우는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똑바로 알려 중생을 구하는 것

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 다른 수련생의 일은 곧 나의 일

저와 수련생들은 평소에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진상 스티커 붙이기, 현수막 걸기, 대면해 진상 알리기 등도 병행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 저와 A 수련생, S 수련생은 수십 리 밖의 마을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6시 발정념을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우리는 여느 때처럼 한 사람당 한 골목씩 맡아 집집마다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배포하고 있을 때 앞 골목에서 누군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A와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가자, 파출소로 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련생이 곤란한 일에 부딪혔구나. 어찌지? 수련생의 일은 곧 나의 일이야. 내게 들리게 하셨으니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저는 단숨에 달려가며 한편으로는 발정념을 하고 한편으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생이 대법에 죄를 짓게 내버려 뒤흔어 안 돼.’

가까이 가보니 키가 큰 남자와 작은 남자 두 명이 있었는데, 키 큰 남자는 수련생의 자료 가방을 잡고 놓지 않았고, 작은 남자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파룬궁이 또 한 명 왔군.” 저는 다가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책자 한 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하늘이 내린 큰 복(天賜洪福)’ 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상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희망이에요! 대법을 선하게 대하는 일념(一念)으로 하늘이 행복과 평안을 내려주니 절대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그

려면 본인에게 안 좋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능력이 좋으면, 저 방에 가서 말해봐.” 제가 뒤돌아보니 작은 매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매점이면 사람이 많다는 거겠지. 당신이 내 담력을 시험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은 우주에서 가장 바른 일이고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나, 가보라면 가지.’

매점에 가보니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고 마작을 하거나 카드를 치거나 한가롭게 앉아 있는 사람이 20~30명이나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우리 인연입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사람을 구하는 것인데 이 추운 날 여러분에게 가져다드린 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여러분이 재난이 닥칠 때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를 아시길 바랄 뿐입니다. 영원히 ‘파룬따파 하오, 찼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 재난이 닥칠 때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테이블인지 모를 곳에서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우리한테도 한 부씩 줘요.” 저는 테이블마다 나눠주었고 옆에 한가롭게 앉아 있던 사람들도 손을 내밀며 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신고하려던 두 사람도 달라고 하더니 즉시 펴서 읽어 보았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한 부 더 주세요.” 그런 다음 주인은 의자와 빵, 사이다를 가져다주며 제게 앉아서 쉬고 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었는데, 여기서 자고 내일 가세요.” 저는 그의 호의에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

아하니 곧 일어날 뻔했던 박해가 사부님의 보호 속에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것입니다.

## 전염병 사태 기간에 사람 구하기가 시급하다

전염병 사태가 가장 심각했을 때 각 촌락과 진(鎭)이 모두 봉쇄되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어서 자료를 배포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수련생들은 제게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고 봉쇄가 풀리면 다시 배포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낮에 저는 집에서 법을 외우고 각지 설법을 공부하며 발정념을 했고, 밤에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거의 2천 부가량 만들어졌을 때 각 마을의 봉쇄도 풀렸습니다. 저는 수련생들과 시간을 약속하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강력한 발정념을 해 대법제자가 자료를 배포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을 교란하는 일체 사악을 제거했습니다.

저녁에 발정념을 마친 후 우리는 바로 출발해 마을마다 집집이 돌아다니며 배포했습니다. 간혹 한두 사람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우리는 직접 자료를 건네주며 자료에 전염병 사태에 대한 진상이 있으니 집에 가져가서 잘 읽어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쁘게 자료를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저와 수련생이 십여 개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마침 아침 7시였고 저는 발이 너무 아팠지만 미처 발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겹옷을 벗고 서둘러 가족들의 아침밥을 지으러 갔습니다. 가족들이 아침밥을 다 먹은 후 방에 돌아와서 보니 양말과 발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 서로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두 엄지발톱이 새까맣게 변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발톱 두 개가 다 빠졌으며, A의 발바닥에도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는 서약을 실천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다

대량으로 진상 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데 좋은 기초를 다져주었습니다. 저와 수련생이 시장에 가서 진상을 알릴 때 첫 마디로 “삼퇴하고 평안을 보장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 중 많은 사람이 자기 집 대문에서 파룬궁 자료를 자주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옌(豔, 가명) 수련생이 시장에서 삼륜차를 운전하는 한 아저씨를 만났는데, 옌은 발정념을 하고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삼퇴하고 평안을 보장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찾아다녔어. 어디서 탈퇴해야 할지 몰랐거든. 공산당이 우리를 너무 괴롭혔어. 내가 가짜 백신을 맞고 나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공산당은 아주 큰 사기꾼이야. 어렸을 때 우리는 밥도 배불리 못 먹었는데 좋은 식량은 다 개네한테 줘야 했고, 늙어서는 한 달에 고작 100위안 남짓 주면서 탐관오리 짓이나 하고 나쁜 짓만 하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뭘 탈퇴하고 싶으신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붉은 스카프(소년선봉대) 탈퇴해야지. 학교 다닐 때 붉은 천 쪼가리를 목에 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돈도 내라고 했잖아. 당신들 자료 보니까 그게 피로 물든 거라던데, 얼른 탈퇴시켜 줘.” 한창 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돌아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붉은 스카프도 탈퇴시켜 줘.” 그들은 실명으로 소년선봉대를 탈퇴했고 또 호신부(護身符)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또 그들에게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외우면 복을 받을 거라고 알려주자 그들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주 혼자서 자료를 만들어 나가서 배포했고, 수련생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했으며, 우리집에는 평소에 항상 한 상자씩 준비해두어 언제든지 나가서 배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끔 정전이 되면 저는 즉시 나가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전이 되면 감시와 CCTV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다들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것을 중시했지만 자료도 우리는 자주 배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대면해 진상을 알리기도 쉬워졌습니다. 진상 달력을 배포하는 것 역시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데 기초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저와 수련생들은 때로 속인의 집에 집집마다 찾아가 진상을 알렸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으며, 우리는 주로 천안문 분신자살, 장자석(藏字石: 중국공산당이 멸망한다고 기록된 고대의 예언석), 부정부패, 백신 후유증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듣고 나면 삼퇴를 선택하여 당, 단, 대일체의 사악한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몇 명을 탈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십여 명을 탈퇴시키기도 했지만 우리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단지 그들에게 진상을 좀 더 많이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상 스티커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기 위해 저는 스쿠터 한 대를 샀습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갈 때도 스쿠터를 타고 온갖 자료를 준비해 40km를 가면서 길을 따라 붙였습니다. 고향에서 처음으로 자료를 배포할 때, 밤에 눈이 살짝 내렸는데 저는 집집마다 배포했고 이 일은 어머니 혼자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리에 누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어머니가 나가보시고는 돌아와서 제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큰일 났다. 파출소에서 사

람이 많이 오고 경찰견까지 데리고 와서 발자국을 찾고 있어. 이를 어찌면 좋니?”

어머니는 놀라서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공산당은 사람을 해치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설쳐대도 다 추악한 짓이고 실패할 일이에요. 우리는 사부님의 보호가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파출소 경찰들은 그곳에서 한참을 뒤지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고향에 돌아갈 때면 저는 대면해 진상을 알렸고 자료도 배포하며 삼퇴를 권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웃 중 한 명은 공청단과 소년선봉대를 탈퇴했고, 제게 연공을 가르쳐 달라고 했으며 ‘전법륜’도 모셔갔습니다.

## 진상 지폐를 교환해주며 사람을 구하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줄곧 진상 지폐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왔지만 한 사람이 쓰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생들에게도 진상 지폐를 사용해 사람을 구하라고 격려했고 제가 그들에게 교환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상점, 식당, 요금소, 잡화점, 노점상에게도 진상 지폐를 교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흔쾌히 받으려고 했고, 이 잔돈들이 가지런하고 깨끗해서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으며 그들은 모두 기쁘게 당, 단, 대 일체의 사악한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따라하며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웠고 대재난이 올 때 평안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진상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 잔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습

니다. 처음에 그들은 한 번에 300, 500위안씩 교환했지만 나중에는 2, 3천 위안씩 교환해갔습니다. 저는 현 소재지에 있는 수련생에게 가서 교환해왔고, 때로는 한 번에 8천, 1만 위안씩 바꾸기도 했습니다. 수련생은 매번 매우 잘 협조해주었습니다. 묵묵히 기여해준 수련생에게 감사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면이 제한적이어서 몇몇 세부 사항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꾸준히 외우며 진정으로 법에 입각해 수련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제 생활이 아주 순조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현재 시간이 날 때마다 법공부를 하고 발정념을 하며, 자료를 만들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고, 집안일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착실히 수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고 수시로 안으로 자신을 찾으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습니다. 매번 부딪히는 갈등과 순조롭지 않은 일들은 모두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제고하도록 안배해주신 기회입니다.

사존의 자비로운 제도와 가지, 보호에 감사드리며, 제자는 계속해서 노력하여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고, 수련의 길을 잘 걷고 바르게 걸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진정으로 날 변화시킨 대법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냐오쑹(蔦松) 예술고등학교 무용반 졸업생입니다. 2023년 냐오쑹 예술고등학교에서 법을 얻었으며, 오늘 여러분과 제 수련 심득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는 이란(宜蘭)현의 푸싱(復興) 중학교에 다녔는데, 당시 학교 무용부 대표팀에 참가했습니다. 지도 선생님은 학생의 품성과 질서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셨고, 저는 이런 고압적인 환경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용부 부장을 맡았고, 전국 B그룹 단체 무용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무용부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보니 반에서 대인관계를 잘 챙기지 못했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친했던 친구와 가장 익숙한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공허했습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의견 충돌로 우리집은 오랫동안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치 깊은 산속 같은 곳에 숨어 무용만 열심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있는 6년제 냐오쑹 예술고등학교에 편입생으로 들어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랐습니다.

## 1. 갈등 속에서 안으로 찾는 법을 배우다

나오쑹 예술고등학교로 전학 왔을 때는 수련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법공부를 한 후 친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수련하고 안으로 찾는지 배웠습니다.

갓 개학했을 때, 저와 마찬가지로 편입생인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머리맡에 저 자신을 격려하는 글을 써서 붙여놓았는데, 그녀들은 그것을 보고 웃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상하다며 왜 그런 걸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느냐고 말했습니다. 전공 자율 무용 연습 때도 그녀들은 옆에서 또 제 얘기를 하며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척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바로 그때 머릿속에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흔히 모순이 생길 때, 사람의 심령(心靈)을 자극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쓸모없으며 제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이 번거로워질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그를 혈똥은 두 사람의 형상을 자꾸 되돌아보려는 생각이 날 것이다.” 당시 그 법이 제 상태와 딱 맞아떨어져서 정말 신기했고, 책에 쓰인 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들이 뒤에서 제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참았고, 선한 방식으로 그녀들을 대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록 가끔은 마음속으로 넘기기 힘들 때도 있었고, 한번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대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 선하게 대할수록 마음에 받는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 험담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괴롭지 않았고, 선량

한 방식으로 그녀들을 대할 수 있게 되니 제 자신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더는 그녀들의 뒷말에 기분을 망치지 않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그녀들이 비웃을 때 도대체 무엇을 비웃는지 주의 깊게 듣고 그 속에서 자신을 제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시간에 제 어떤 동작이 안 좋다고 비웃으면, 그녀들이 저를 일깨워 준다고 생각하며 그 동작을 고쳤습니다. 이후 그녀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처하다 보니 저도 점차 마음에 두지 않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들은 전학을 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수련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 의식적으로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이미 전학 간 그 친구 중 한 명을 다시 마주쳤는데 마음속으로 여전히 약간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당시 제가 한 것은 억지로 참은 것일 뿐, 수련인의 참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때 일을 모르고, 이 한평생에 그 한평생의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전법륜) 저는 문득 그녀들이 저를 그렇게 대한 것이 어찌면 전생에 제가 빚을 저서 이번 생에 갚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의 긴장감과 원한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먼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 친구와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이 두 친구 외에도 원래 같은 반이었던 다른 친구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그녀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할 때도 꽤 사납고 목소리가 커서 저도 그녀가 좀 무서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1학년 리허설 때 어느 구간에서 제가 그녀 옆자리에 배정됐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기술을 잘 터득하지 못해 계속 그녀와 부딪혔습니다. 속으로 자책

도 되고 무서웠는데, 마침 저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찢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 마음을 찾은 후, 그 무용 구간을 출 때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얼른 제 동작을 교정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을 했는데 그녀가 제 선물을 뽑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운이 너무 나쁘다며 소리를 지르고는 듣기 싫은 말도 몇 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저를 싫어하는 부분에서 안으로 찾다 보니, 제가 많은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꺼내지 않아서 생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해야 할 말은 되도록 다 꺼내고 그녀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말투도 점점 부드러워졌고, 나중에는 저와 함께 화장실에 갈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이 심득 교류 원고를 쓰면서 또 새로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 심성을 높이도록 도와주려 온 것임을 깨달았으며, 마땅히 그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2. 생각이 바뀌자 새로운 경지가 열린다

나오쑹 예술고등학교에 가기 전,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부모님은 이혼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이 일은 제게 너무나 큰 타격이었고 마음도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법을 얻고 ‘전법륜’ 제6강을 읽던 중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생각해 보지 않는데, 이것은 당신을 시달리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형식으로 당신을 편안히 지내지 못하게 한다.” 저는 연공인은 마땅히 정(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넓어졌고,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 일을 잘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집은 갑자기

평안을 되찾았고, 저는 제 사람 마음과 관념이 바뀌면서 가져온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하면서 사부님의 시집 ‘홍음(洪吟)’ 중 ‘신생(新生)’에 나오는 “관념이 바뀌고 부패된 물체 없애니 광명이 나타나네”라는 층차의 법리를 한층 더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치과 의사가 아래쪽 사랑니 두 개를 두 번에 나눠서 뽑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를 뽑는다’는 말만 듣고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사랑니를 뽑을 때 내내 공포에 떨었고, 뽑은 후에도 계속 상처가 덧날까 봐 걱정하며 진통제까지 한 알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렸고 거의 일주일 내내 입을 조금밖에 벌릴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도 힘들었고 상처가 덧나 편도선에 고름이 잡히면서 머리까지 아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입안에 그렇게 큰 상처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며, 제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니를 뽑을 때는 두려움을 버릴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一念)에서 나오며, 이 일념의 차이가 부동(不同)한 후과(後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불과 이틀 만에 상처가 아물어 아프지도 않았고, 입도 거의 다 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경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니 제게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의 두 가지 결과를 겪게 한 것입니다. 이 일 덕분에 이후 입안 수술을 마쳤을 때는 진통제를 먹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 3. 단체 수업과 리허설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다

중학교 때의 경험 때문에 저는 고압적인 환경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쑹의 수업과 리허설 방식이 좀 느슨하다고 느꼈고, 전공 학습과 리허설 중에 종종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고압적인 환경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자 갑자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진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환경에는 저마다의 운영 방식이 있으며, 저는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지 제 관념으로 환경을 평가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아의 관념을 내려놓고 어떻게 환경에 적응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제 자제력 부족 때문이었고 그래서 환경이 느슨하다고 느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식한 이후에는 자신을 조절하며 엄격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무용 대표팀에서는 항상 선생님이 저를 중요한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제 무의식은 줄곧 제 자신이 꽤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늘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억누르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리허설 때 보니 제가 맨 가장자리 쪽에 설 때가 잦았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사실 계속 불만이었지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내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한번은 단체 무용을 리허설할 때였는데 저는 여전히 몹시 불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점프 동작을 하고 내려오는데, 어찌 된 일인지 발이 아주 기이한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발목이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 말겠지 했는데, 무용 한 곡을 다 끝내고 나니 제 발목 관절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

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서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낀 것 같았습니다.

그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만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어째서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있는지 너무 부끄러웠으며, 내심 줄곧 갈등이 심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저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면서도 이 무용에서 눈에 띄는 자리를 맡지 못하자 생긴 질투심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그날이 마침 단체 무용 평가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옆에서 그녀들이 단체 무용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무용에 사실 제가 빠져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제 자신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친구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게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발목이 회복돼 단체 무용에 복귀한 후 집착을 내려놓고 주변 친구들을 느끼려고 노력하자, 저는 일종의 구심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격의 없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 맺음말

법을 얻기 전, 저는 잡념이 많고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몇 달씩 우울증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을 시작하고 법공부를 하면서 안으로 찾는 법을 배웠고, 점차 제 사람 마음과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루하루 넓어지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든 리허설에서든, 더는 지나친 생각으로 제 자신을 소모하거나 당면한 일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됐고 서서히 우울증에

서도 벗어났습니다. 수련 덕분에 이전에는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집착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법공부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법을 얻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집에서는 저 혼자 수련하고 있지만, 저는 이 수련의 길을 곳곳이 걸어갈 것입니다. 대법이 진정으로 저를 많이 변화시켰기에 저는 사부님과 대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대만 법회 원고)

## 속인에서 수련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

글/ 대만 신수련생

[명혜망]

### 1. 법을 얻은 과정

저는 사이클 선수입니다. 2024년 7월 20일 훈련 도중 마주 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얼굴이 찢어지고 심각한 기흉과 혈흉이 생겼으며, 간이 4등급으로 심하게 파열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충돌하는 순간 뒤로 튕겨 나가며 옆에 있던 가드레일에 부딪혔는데, 그 위에는 철근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적처럼 완전히 피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부님께서 제가 법을 얻기 전부터 이미 저를 보호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혼자 훈련하는 편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동료 한 명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정표도 없는 농로에서 구급차가 저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등 기독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워낙 부상이 심각해 그곳 의료 시설로는 처치할 수 없었고, 곧바로 가오슝 룡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위기를 넘긴 뒤 중환자실에 3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심각한 간 파열 때문에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선수라 체력이 좋았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가려고 몇 걸음만 걸어도 힘이 부칠 정도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 갓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접한 참이었습니다. 연공만 했을 뿐 아직 ‘전법륜(轉法輪)’은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입원 기간에 아버지가 ‘전법륜’ 한 권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제1강을 다 읽고 나니 다음 날 체력이 눈에 띄게 크게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 병실에 입원한 10일 동안 ‘전법륜’을 세 번이나 통독했고, 통증을 참아가며 병실 안에서 연공도 했습니다. 당시 가슴에 배액관을 꽂고 있어서 동작 하나를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따랐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회진을 와서 확인해보더니 배액관으로 나온 조직액이 아주 깨끗해졌다며 평가를 거쳐 그 자리에서 흉관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당초 의사는 얼굴의 심한 열상 때문에 나중에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즈를 떼어내자 상처가 뜻밖에 아주 잘 아물어 있어서 성형수술조차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퇴원한 바로 다음 날 집에서 다시 훈련 장비에 올라 사이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이를 듣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간이 심하게 파열된 환자는 극도로 피로를 느끼기에 어떤 훈련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퇴원 다음 날 부터 바로 훈련에 복귀한 것입니다.

더 믿기 힘든 사실은 퇴원한 지 불과 2개월 반 만에 대회 출발선에 섰고 단숨에 2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이클 동료들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2개월여 전만 해도 숨이 간당간당한 중상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회를 완주한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얻은 새 생명의 힘을 안고 당당히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 2. 수련 후 쟁투심과 질투심을 내려놓다

수련을 시작하기 전 사이클 경기장에서 저는 항상 강한 쟁투심과 질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평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잦았습니다. 어떤 동료는 평소 훈련할 때 실력이 그저 그런데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강한 질투심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전법륜’에서 질투심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당신이 보기에는 당신이 무엇을 해도 다 잘하지만 당신의 명(命) 중에는 없으며, 그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의 명 중에는 있기에 그는 간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의 집착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재 선수들을 마주할 때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그들은 대충 훈련하고도 저와 같은 수준에 오르는 것을 보며 자주 화가 났습니다. 수련한 뒤로는 이런 평형을 잃은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가짐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승부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합 전에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당일에는 이기고 싶다는 압박감 때문에 동작이 굳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결국 성적도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부에 연연하지 않게 된 후부터는 시합 전에 더 이상 초조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됐고, 경기장에서도 한결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황에 맞게 전술을 유연하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승부심에 얽매이지 않자 오히려 제 기량을 십분 발휘하게 됐고, 성적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 3. 수련 후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예전의 저는 가족을 대할 때 항상 인내심이 부족했고 말투에도 늘 까칠함과 통제하려는 욕구가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항상 제 생각만 옳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이 제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어떤 습관이 눈에 거슬리면, 첫 반응으로 당장 참견하고 따지고 들었으며 툭하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집안 분위기만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련한 뒤 저는 점차 ‘사람은 제각기 운명이 있다’(전법륜)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생명 궤적이 있고 마주해야 할 과제가 있으므로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운명과 선택을 좌우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자 원래 급했던 성격도 차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가족과 마주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당장 감정에 휘둘러 가시 돈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한 발 물러서서 몇 초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온화한 말투와 선의로 대화하며, 더 많은 경우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 자신조차 이런 은연중의 변화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먼저 제게 “너 가족을 대하는 태도랑 지내는 모습이 아주 많이 변한 거 같지 않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보니, 심성의 제고가 알게 모르게 제가 가족과 지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 4. 수련 후 팀을 이끌고 팀원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예전에 사이클 팀에서 저는 팀원들을 너무 강경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평가회를 할 때면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모두가 반드시 제 지시와 논리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엄한 스승 밑에서 뛰어난 제자가 나온다고 굳게 믿었고, 가장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비판만이 몽둥이처럼 사람들을 일깨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팀원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고 다 같이 성적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당시의 저는 이치에 맞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말투에는 조급함과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런 강경한 소통 방식은 아무리 분석이 정확하고 이치에 맞아도 팀원들의 마음에 방어벽과 반발심만 일으켜 어떤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경기 후의 토론장을 좌절감과 억압으로

가득 채웠고, 팀 분위기마저 아주 썰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련 이후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자신을 증명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기세를 거두고 완전히 다른 온도와 시각으로 팀원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뜻밖에도 과거에 강경한 수단으로는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번은 시합에서 우리 팀이 꽤 선전해 제가 무난히 우승을 차지했고, 다른 두 팀원도 각각 3위와 6위에 올랐던 일이 기억납니다. 시합이 끝난 뒤 6위를 한 팀원이 몹시 속상하고 우울해하며 제게 다가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평소에 파워 테스트를 하거나 체력 훈련을 할 때는 분명 다들 비슷한데, 왜 막상 정식 시합만 나가면 이렇게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예전의 저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가차 없이 찬물을 끼얹으며 호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네 자세는 공기 저항을 그렇게 많이 받잖아! 세세한 건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써야 할 장비도 안 쓰면서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체력이 좋다고 함부로 힘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상대가 만만해 보여서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라며 곧장 날 선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당장 마음의 문을 닫고 모욕감을 느끼며 마음이 상해 제가 그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부정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제가 그를 위해 성적을 올려주려 한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절대 반 마디도 더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둘러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자리에 앉아 시합 전체의 흐름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분

석해 주었습니다. 순수한 체력 소모 외에도 제가 시합 전에 코스에 맞춰 속도 분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고속 평지 구간에서 라이딩 자세가 공기 저항과 체력 소모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말을 계속 이어가자 그는 약간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갈등하는 기색을 보이며, 자신의 자세는 오랫동안 연습해왔기에 꽤 표준적일 것이라 굳이 다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그의 자세에서 살짝 고치면 좋을 핵심적인 세부 사항 몇 가지를 짚어준 다음, 예전처럼 기어이 이기려 들거나 당장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가벼운 말투로 그에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정말 바꾸기 싫으면 안 바뀌도 돼. 그럼 뭐, 다음 시합에서도 내가 계속 이기는 수밖에.”

이 말에는 어떠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비아냥거림도 없었고, 오히려 약간의 유머와 진심으로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라는 선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멍해지더니 눈빛에 서려 있던 경계심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전문적인지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한계 돌파를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태도를 180도 바꾸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바꿀게! 바꿀게! 돌아가면 당장 고칠게!”

이 일은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줬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가혹한 말과 매몰찬 비판을 쏟아부어야만 사람을 억지로라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련한 후에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과 날 선 기세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선(善)의 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대할 때 비로소 그 말이 진정한 호소력을 지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만 상대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전제하에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면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삭막한 분위기 때문에 전체 팀을 관리하기도 한층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최근 대학원 진학 준비와 합격 안내에 관해서도 몇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대학원 입시 때 저는 총 6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학교마다 속속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앞서 발표한 몇 곳은 모조리 떨어졌습니다. 수련하기 전의 저였다면 이렇게 잇따른 좌절을 마주하며 마음속이 이미 실망과 초조함, 평형을 잃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 내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 과도한 슬픔이나 자책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 수련인은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름을 말하는데, 당신의 것이라면 잃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다뤄서도 얻지 못한다”(전법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커 대학 합격자 발표 날이 되자, 다른 학교에서 줄줄이 낙방했던 것과 달리 저는 원커 대학에 무난히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일반전형 수석으로 뽑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원커 대학에서 연공하며 흥법하기를 바라시는 사부님의 세심한 안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수석 합격이라는 결과는 제게 있어 남에게 떠벌리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앞으로 2년의

석사 과정 동안 저는 이 소중한 환경을 아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부님께서 제게 안배해 주신 이 수련과 법을 실증하는 길을 원만하게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대만 법회 원고)

## 이기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감하게 정법 수련의 길을 견지하다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고, 어느새 법을 얻은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련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마음가짐과 체득을 수련생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 1. 법을 얻어 수련하며 대법의 신기함을 목격하다

수련 전에는 괜찮은 직업이 있었고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도무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탓에 아무것도 털어버리거나 내려놓지 못했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온몸이 병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법을 얻어 수련한 지 얼마 후, 집 근처에 연공장을 세웠습니다. 연공을 매우 중시한 데

다 매일 아침 연공 음악 플레이어를 켜겨야 했기에, 10여 년간 거의 매일 아침 5장 공법을 모두 연마했습니다. 대법 수련은 신체를 빠르게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마음을 밝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에 비해 아주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지금은 경로우대를 받을 나이가 몇 년이나 지났지만, VIP 고객을 방문하거나 전시장 등에서 장시간 서서 서비스할 때도 여전히 고객들에게 산뜻하고 활기찬 전문가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실무에 바빠 저도 모르게 정진하려는 의지가 느슨해졌고, 아침 연공을 하다 말다 했습니다. 하루는 선원 무용수의 생활 이야기를 보고 자율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안일함을 추구하는 나쁜 습관을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길에 차가 적은 새벽을 틈타 일찍 회사에 가서 연공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확고했기 때문인지 사부님께서 여러 번 가는 길 내내 파란불을 켜주셨습니다. 신베이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타이베이로 가는 길에는 신호등이 10개나 있는데 놀랍게도 모두 파란불이었고, 회사 건물 지하실 구석에 주차하기 힘든 좁은 주차 공간에도 한 번에 쉽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 수련에 들어선 후 마음이 아주 단순해졌고, 사부님께서 저에게 대법의 신성함과 신기함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셨는데, 수술 전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내면이 평온하고 상서로워질 수 있다며 진심으로 외워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후 아버지는 마취 중에 아주 따뜻하고 밝은 빛이 자신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으며, 수술은 아주 순조로웠고 회복도 매우 빠르셨습니

다. 우리집에는 부겐빌레아 한 그루를 심었는데, 벌레가 먹어 이미 속이 비었고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아 얇은 나무껍질만 철근에 의지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향해 ‘파룬따파하오, 찼싼런하오’를 외우며 함께 대법에 동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이 부겐빌레아가 살아났고 끊임없이 예쁜 꽃을 피우며 마치 주인에게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은 해외 진상 알리기 활동에 참가했다가 미국에서 대만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2~3팀의 대만 수련생들과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환승해야 했고 다른 팀들은 대만으로 직항했습니다. 환승할 때 한순간의 부주의로 비행기에 ‘전법륜(轉法輪)’을 두고 내렸습니다. 당시 몹시 속상해서 사부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승무원이 보서를 버리지 않기를,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거나 인연 있는 승무원이 가져다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타오위안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쳤을 때, 다른 팀 수련생이 저를 불러세우더니 누군가 저에게 ‘전법륜’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깜짝 놀랐고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으며 보물을 되찾아 기뻐했습니다.

진상을 알리기 시작한 후, 전화를 거는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권유 전화를 걸고, 전화를 다 건 후에는 밤 9시에 발정념을 한 뒤, 이어서 수련생들과 법공부를 하며 매일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항상 마음먹은 대로 이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여 통의 전화를 걸어 6통이나 삼퇴를 성사시킨 적도 있었고, 중생을 위해 지어준 가명이 마침 그의 본명이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격려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 2. 끊임없이 참음(忍)을 수련하며 남편에 대한 원망심을 내려놓다

남편과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수련 전에는 모든 것을 제가 결정했고 매사에 남편이 양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련 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남편은 제게 큰 시련과 고난을 줬습니다. 그는 자주 폭음을 하고 술주정을 부리며 고함을 지르거나 옛날 일을 들추며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짓을 수시로 했습니다. 한번은 말다툼 중에 남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당시 몹시 당황했지만, ‘역사적으로 그에게 빚진 게 있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갚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에게 뺨을 10대 가까이 맞았고, 눈물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후 무려 3개월 동안 법공부와 연공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억울했고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법을 얻은 초기에 이런 큰 고비를 만나, 꽤 오랫동안 어떻게 수련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억울하게 참으며 무조건 양보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하며 ‘정진요지-무엇이 참음인가’를 읽다가, 제가 아예 진정으로 참음을 수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또한 매번 남편이 술을 마실 때 겉으로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화를 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겉으로 다정하게 대하고 잘해준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조건부였으며, 때로는 그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며 적당히 맞춰준 것뿐이지 진정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전히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잠을 못 자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할

때면, 속으로 강한 원망심이 일었고 제가 잘해줄 가치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한번은 밤이 아주 깊었는데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또 행패를 부려, 고비를 넘지 못하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느꼈습니다.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를 한 번 밀쳤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뒷걸음질을 몇 번 치더니 소파에 주저앉았고, 제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조금만 힘을 줘도 팔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정말 힘껏 잡아당기고 싶었는데,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저의 원망을 보았습니다. 사부님께서 하신 “선자(善者)는 늘 慈悲心(츠뻬이썬)이 있어, 원망도 증오도 없이, 고생을 낙으로 삼는다”(정진요지-경지)라는 법이 생각났습니다. 수련인이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때 손을 놓았고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또 한번은 대법 활동에 참가했는데, 분명히 남편에게 미리 알렸음에도 20통 넘게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 당장 집에 오라고 협박했습니다. 또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사람을 구하는 일을 교란하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기에, 배후에 있는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비록 한순간에 제 부족함이나 집착심을 찾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일은 전 우주에서 가장 바른 일이므로 사악이 조종해 교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정념을 발하며 ‘괜찮을 거야, 집에 가도 아무 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련한 지 여러 해가 지나 심성이 제고됨에 따라, 남편에 대한 원망과 증오도 점차 열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바로잡았습니다. 저

는 수련인입니다. 남편이 술주정을 부리며 고함을 지르는 것은 제게 업을 덜고, 덕을 쌓으며, 심성을 높이고, 공이 자라는 일거사득의 좋은 일인데 어떻게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제 수련을 성취해주러 온 것입니다. 그 일 이후 마침내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할 때면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 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을 얻었고 남편은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선의 힘이 매우 커서, 이성을 잃은 소동을 금방 끝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남을 위하고 이타적일수록 더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3. 그물망을 뚫고 나와 중생을 첫자리에 두다

저는 2013년에 에포크타임스 매체 항목에 합류했는데, 초심은 바로 사람을 구하는 사명을 맡아 매체라는 법기를 통해 진상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 일을 하며 기업 고객과 약속을 잡고 에포크타임스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이후 신문 발행 및 홍보 임무를 맡아 타이베이의 고급스럽고 가장 노른자위 땅 지역에서 에포크타임스 신문을 홍보하며, 권력 있고 돈 있으며 영향력 있는 더 많은 중생이 에포크타임스를 보고 진상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데다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이 생겼고 줄곧 밖으로 걸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신은 스타킹이 아무 이유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끝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어서 자신을 돌파하고 그물망을 뚫고 나오라는 사부님의 일깨움임을 깨달았습

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작은 여행 가방을 준비해 상자 가득 신문을 담아 끌고서,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사부님의 도움에 힘입어 대만 전체에서 손꼽히는 노른자위 땅 구역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딘 후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또 짊어진 사명감 덕분에 안일함을 없애고 편안한 구역에서 벗어나 빌딩 숲을 누비며 행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덥거나 큰비가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오후에 5시간을 걸었는데, 신발 두 켤레가 닳아 떨어졌지만 속으로는 그저 에포크타임스의 복음과 진상을 널리 전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수련의 일부분이고 고생을 낙으로 삼으면 육체적인 고통 정도는 이를 짝 깨물고 견디면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많이 내려놓고 내면을 중생으로 가득 채우면 온갖 고통은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진실하게 체득했습니다.

상업용 빌딩을 하나하나 개척하고, 사무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홍보하는 날들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한 커피 수입업체 사장님은 제 모습을 보고 무척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승무원 같은 옷차림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서 영업사원처럼 집집마다 방문하십니까?” 사장님은 커피와 간식을 대접했고, 우리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상을 듣고 난 후 깨닫고 신문을 구독했으며 선원 공연도 보러 갔습니다. 또 한 착한 의사 부인은 진상을 들은 후 에포크타임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매체에 대해 오해가 깊었던 한 대만 사업가는 저를 쫓아내려 했지만, 저는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굳건했기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자세로 그 과정에서 박해 진상을 많이 알렸습니다. 결국 그

는 진상을 깨달았고 선의로 가득 찼으며 표정과 태도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작년에 에포크타임스에서 ‘9평 공산당: 용자의 길’ 특별전을 열었는데, 해설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 전체가 수련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고 부족한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전 이틀 전에 해설 임무를 맡게 돼 너무 촉박하다고 느꼈고, 큰 도전이자 시련이라서 많은 사람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가? 왜 이렇게 두렵고 초조한가?’ 두렵고 초조한 것이 제 본모습이 아님을 의식하고 그것이 저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악이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정념을 강화해 해설하는 것을 교란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동시에 체면을 너무 중시해 해설을 잘하지 못하면 체면을 구기고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이 특별전이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정신적 내포처럼, 저 역시 내면이 강인한 용자가 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매체 항목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용감하게 임무를 짊어지고 중생을 첫자리에 뒹야지, 자신의 득실과 감정을 첫자리에 뒹서는 안 됐습니다.

안으로 찾아 부족함을 발견하자 사부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신속하게 해설 흐름과 각 전시 구역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갈지를 정리했고 더 이상 두렵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수련의 깨달음을 얻었기에 해설할 때 내면의 인식을 더욱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중생이 진상을 알고 나서 대법제자에게 감탄하고 에포크타임스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저는 영원히 여러분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선원 무용 예술가 인터뷰 영상에서 어떤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용감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맞설 용기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좌절과 수련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마다, 내면이 강인한 용자가 돼 자신을 더 많이 내려놓고 이기심을 더 많이 제거해 항목에 더 많이 기여하고 수련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수련의 길을 걸어오며 비틀거리기도 했고 때로는 고비를 넘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고쳐나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수련이 정말 좋다고 늘 느꼈습니다. 사부님의 안배와 자비로운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사부님을 도와 정법을 하는 길에서 반드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수련인의 기점으로 문제를 보고 용감하게 끝까지 견지하며, 사전 서약을 실현해야만 비로소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심 어린 제도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련에 대한 마음가짐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대만 법회 원고)

## 착실한 수련을 견지하며 사명을 완수하다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대학원을 졸업할 때 기쁘게 대법을 얻어 지금까지 25년간 수련했고, 현재 국가급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법제자가 돼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병 없이 몸이 가벼워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착실한 수련을 견지하고 세 가지 일을 잘해 사부님을 웃으시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은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공유할 저의 최근 수련 심득입니다.

### 1. 법 암기를 견지하며 얻은 수확

저는 매일 법공부 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법륜(轉法輪)’을 머릿속에 외워 생명을 대법에 동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초 명혜라디오의 법 암기 견지 특집을 듣고, 수련생들이 공유한 수많은 법 암기 방법, 법 암기를 견지하는 과정과 법 암기 후의 심신 변화를 들으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전법륜’을 외우기로 발원했습니다. 저는 한 구절씩 법을 외우고 한 자연 단락을 숙지하면 계속해서 다음 자연 단락을 외워나가며 처음부터 다시 외울 필요가 없는 이 방법이 제게 비교적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 첫 번째 ‘전법륜’을 외우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전법륜’을 몇 번 다 외웠는지 이미 기억나지 않습니다. 법을 잘 외우려면 우선 조급해하는 마음을 없애야 하고, 생각이 빗나가서는 안 되며, 주의식이 반드시 또렷해야만 그 단락의 법을 외울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법 암기를 통해 대법의 더 높은 법리를 체득하게 됐고, 심성의 제고와 경지의 승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점차 갈등에 부딪힐 때 안으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언행과 일사일념을 비교적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좋지 않은 생각의 교란을 배제하고 정념으로 문제를 보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전법륜’ 중 질투심에 관한 한 단락의 법을 외울 때, 저는 마음속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질투심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고 마땅히 이 마음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2. 안으로 찾아 가정을 잘 조화시키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딸이 제 뒤에서 갑자기 “식사하세요!”라고 크게 소리쳐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너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씩 웃더니 가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조금 언짢아져서 속으로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온 가족이 밥을 다 먹은 후 저는 주방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딸은 뒷베란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딸에게 가벼운 장난을 쳤습니다. 딸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는 두 손을 아내 쪽으로 털었는데, 잘못 털어서 제 얼굴에 물이 튀었습니다. 순간 저의 분노 지수가 극에 달해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딸 쪽으로 던져버렸습니

다. 딸은 즉시 깜짝 놀랐고, 아빠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화가 나서 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딸은 제게 사과하는 작은 쪽지를 썼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리고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함부로 장난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일깨울게요.’

집안일을 다 끝낸 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으로 찾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속인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의 불합리한 요구를 만나도 화내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집에서는 연거푸 일어난 두 가지 작은 일에 어째서 심성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결국 제게 두 가지 집착심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체면이었습니다. 내가 아빠인데 네가 어떻게 내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오려 하느냐, 외부인이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딸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게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 즉 ‘남고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집착심이었습니다. 사실 딸은 그저 약간 장난을 쳤을 뿐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딸을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그렇게 크게 화내면 안 되는 거였어.” 저는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법륜’을 집어 들고 이 단락의 법을 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참음은 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나는 성격이 좋지 않다.’ 성격이 좋지 않으면 고쳐야 하지 않는가. 연공인은 반드시 참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단속하는 데도 화를 내며 그야말로 떠들썩한데, 당신이 자녀를 단속한다

해도 그럴 필요가 없으며, 당신 자신은 진정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좀 이지(理智)적으로 자녀를 교육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빠도 앞으로는 항상 법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는 걸 스스로 일깨울 테니까, 너도 앞으로는 함부로 장난치지 말렴.” 그러자 딸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러 갔습니다.

### 3. 정체에 협력해 초국가적 박해를 부정하다

올해 1월, 선원 대만 순회공연 중 어느 공연장의 후방 지원 보안팀 협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연 전날 밤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 공연장 측이 두 통의 협박 편지를 받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최 측에 당일 내로 보안대피 계획서를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임무를 받았을 때는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사람의 관념과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공연장 측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계획서를 완성하라고 할 수 있지?’ 기한 내에 반드시 완성해야 함을 고려해 일단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작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만 전체 보안 협조인에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대만 전체 보안 협조인과 연락이 닿은 후, 그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며 제게 두 가지 해결책을 따로 제시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공연장 측에 가서 이전에 대만의 다른 장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받았지만 어떤 위해 사건도 발생한 적이 없었고 보안대피 계획서를 쓰라는 요구도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만약 정말 써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 수련생이 아주 잘 쓸 것 같으니 그에게 부탁해 쓰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협조인이 제공한 해결책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보안팀 부협조인 수련생에게 공연장 측, 경찰, 그리고 우리 측이 막 설립한 긴급 임무 통신 그룹 채팅방의 일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 지나갔지만 당시 저는 여전히 어떻게 써야 할지 실마리를 찾지 못해 먼저 인터넷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적합하게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요구하며, 협박 편지는 중국 공산당(중공)이 초국가적 박해로 선원 공연을 교란하고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것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마땅히 법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고 자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공연장 측도 이런 협박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 스트레스가 매우 컸을 것이고, 만약 정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공연장 측에 있다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연장 측과 경찰, 그리고 우리 측이 회의를 마친 후 공동으로 결의한 보안 검색과 보안대피 계획서 제공 등의 방법 조치들은 속인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번거로움을 두려워하고 시간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없애고, 정념으로 이번 교란의 시련을 대하며 심성을 제고할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개인적인 집착을 내려놓자 보안대피 계획서를 작성할 지혜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 밤 11시 52분에 순조롭게 완성해 우리 측 총괄 협조인에게 보냈습니다.

일부 수련생은 공연을 보려는 관객에게 보안 검색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약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과 교류하며 말했습니다. “공연장 측이 받은 협박 편지 내용의 대의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관객 명의로 표를 사서 입장해 흥기를 휘두르거나 무대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것이어서 공연장 측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는 절묘한 안배로 어느 사기업에 회의하러 출장을 갔었는데 들어갈 때 여성 보안직원이 제게 가방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며 위험물을 소지했는지 검사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협조인이 적합한 여성 수련생을 안배해 다중 통로 방식으로 보안 검색을 진행해 최대한 관객들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관객이라면 최고 수준의 공연을 마음 편히 볼 수 있게 해주고, 최근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과 흥기 난동 같은 사건이 발생할까 걱정하지 않도록 해준 주최 측에 감사할 겁니다.” 그러자 원래 이해하지 못했던 수련생도 마음속의 우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이번에 공연장 측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매우 높은 요구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많은 수련생이 이타적이고 묵묵하게 정념으로 일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았고 이는 저를 매우 감동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속속 공연장을 빠져나올 때, 공연장 관장은 마침내 굳어 있던 얼굴을 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연이 원만하게 성공한 것을 축하했고 우리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초국가적 박해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 저는 진정으로 사부님께서 ‘2005년 샌프란시스코 법회 설법’에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마음의 고향 중에서, 한 수련인으로서 말한다면 사

람과 신의 두 가지 개념의 인식 중에서, 상호 충돌 속에서 이 상태가 출현할 수 있다. 사람의 사상이 우위를 점한다면, 그럼 그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신의 사상과 사람의 정념이 우위를 점한다면, 그는 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4. 수련의 기점을 바르게 놓고 사명을 완수하다

재료공학과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막 수련에 들어선 저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선택에 직면해, 근무 시간은 비교적 길지만 급여가 높은 과학기술 업계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 세상에 온 목적이 대법제자가 되어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기 위함임을 알았기에 정시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단위의 일자리를 의연하게 선택했습니다. 대법을 수련했기에 저는 진실함, 선량함, 그리고 인내심으로 동료들을 대했고 또한 대법이 제게 지혜를 열어주어 연구개발의 핵심 기술을 매우 효율적으로 돌파하게 했으며, 많은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내고 자주국방 임무를 완성하게 해 제가 상사와 동료들의 깊은 신뢰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직장에서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 파트장, 부팀장을 거쳐 현재의 팀장 직위까지 아주 순조롭게 승진했습니다.

뛰어난 업무 성과로 인해 상사는 제게 여가 시간을 이용해 박사 과정을 밟아 학력을 높여, 장래에 더 높은 고위 관리직을 맡을 기회를 얻어볼지 고려해 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여가 시간이 제게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해 저는 사부님께서 ‘정진요지3-뉴욕법회에 드리는 축사’에서 하신 이 단락의 법으로 자신을 독려했습니다. “역사의 과거에서 당신들은 인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휘황(輝煌)을 창조했고, 역사의 오늘날, 대법은 당신들에게 중생을 구도

(救度)할 사명을 부여했으며, 역사의 장래에 당신들의 순수하고 올바른 일체는 바로 대궁(大穹)이 성주불과(成住不破)할 수 있는 보증이다.”

법을 얻은 초기부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터넷 진상 알리기에 참여했던 것을 돌아보면 수동으로 온라인 진상 알리기, 기술원 직책 수행, 미니 프로그램 개발, 조율 창구 담당을 거쳐 지금의 말하며 진상 알리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말로 진상을 알리는 것은 제 매일 생활 중 일부가 됐습니다. 25년을 겪어오며 얻기 쉽지 않은 정법시기 수련의 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외에도 더욱 정진해 세 가지 일을 잘함으로써 사부님의 고심 어린 제도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장래에 더 높은 등급의 관리 계층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련인은 자연스러움에 따름을 말하므로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천금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며, 자비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더 많은 소중한 중국인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 명의 중국인이 구원받으면 그 배후의 방대한 생명군도 모두 구원받게 되니 이는 얼마나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중국 네티즌에게 진상을 알릴 때 상대방이 기꺼이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려 할 때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생명이 구원받았음에 진심으로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대만 법회 원고)



▲ 2026년 10월 17일, 대만 법회에 참가한 약 4600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글자 배열 행사가 끝난 뒤 “사부님의 넓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으로 리홍쯔 사부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85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783만 1212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